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5월)

1.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관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위생법 제11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제품을 일본에 수입시에는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함
 - 동제도는 2020.6.1.일자로 시행되나, 실제 적용일은 2021.6.1.일 부터임
- 한국의 경우 상기 HACCP 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현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국으로 인해 식육 및 식조류의 대일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 상기 식육과는 별도로 식육가공제품(햄, 소세지 등)의 경우 한일간에 별도 협약된 조약에 의해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한 상태로 이 경우에는 일본에서 요구하는 HACCP 인증 확인 절차와 관계 없이 현행대로 수출이 가능함
- 돈육 및 가금육 한일 협약에 의해 지정된 품목
 - 돈육 : 햄, 소세지, 만두(돈육포함), 돈카츠 등
 - 가금육 : 너겟류 등

2. 한국산 위반사례 증가

- 일본정부는 CV19 관련한 검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입항하는 페리선박에 대해 일반 여행객 승선 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그동안 여행객을 통해 핸드캐리로 수출되던 한국산 식품 반입이 정식통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율 증가 경향을 보임
- 핸드캐리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검역소 및 세관에 간이통관품으로 검사 없이 반입되어 왔으나 정상무역으로 전환되면서 정식으로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식품위반 사례가 5월 들어 3건

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6월의 경우 한국산 신선 깻잎에서 잔류농약인 치아클로프리드가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는 0.2PPM이 검출되어 모니터링 강화 상태임

<2020년 한국산 위반사례 내역>

| 품 목 | 위반사항 | 위반 세부 내역 | 일자 |
|-------------|------|--|------------|
| 떡볶이 소스 | 첨가물 | 폴리솔리베이트 80, 0.078%(기준치 0.020) | 2020-01-10 |
| 단무지 | 첨가물 | 솔빈산0.60g/kg(기준치 불검출), 이산화유황0.065g/kg(기준치 0.030) | 2020-01-24 |
| 무말랭이 김치(냉동) | 위생 | 세균수 1.2*10 ⁵ /g, 대장균군 양성 | 2020-05-10 |
| 깻잎김치 | 위생 | 대장균군 양성 | 2020-05-10 |
| 스넵과자류 | 첨가물 | 삭카린나트륨0.189g/kg(기준치 0.10) | 2020-05-21 |
| 신선 깻잎 | 잔류농약 | 잔류농약 치아클로프리드 0.2ppm검출(기준치0.1) | 2020-06-12 |

※ 자료원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 시사점

- 금년들어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1월에 발생한 2건에 불과하였으나, 5월 들어 3건이 연속 발생함으로서 수출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함. 특히 신선농산물의 경우 향후 동일한 농약성분으로 추가로 1건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전수검사 조치가 발동됨으로 생산지 농가 관리가 중요함

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5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38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무말랭이 김치 등에서 대장균군 양성등의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곡물류 온도변화 등

부패 발생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12건(31.6%),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9건(23.7),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 6건(15.8)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물 위반이 9건(23.7)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분석

- 중국 수입식품의 위반건수가 8건으로 위반율이 제일 높았으며,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21.1%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5건, 아플라톡신 2건, 기타 1건이 발생함
- 중국산 신선양파에서 잔류농약인 치아메톡삼이 기준치인 0.02ppm을 초과한 0.04가 검출되어 잔류농약 위반으로 처리되었으며, 냉동브룩콜리에서 잔류농약 프로시미돈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한 0.02 및 0.03이 검출된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현재, 중국산 양파 및 브룩콜리의 경우 모든 수입시 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통관이 가능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분석

- 미국은 6건의 위반건수 중 아몬드, 땅콩류 등에서 곰팡이균 아플라톡신 위반이 5건, 대두에서 부패, 변색등의 위생 위반이 1건 발생함

○ 한국산 대일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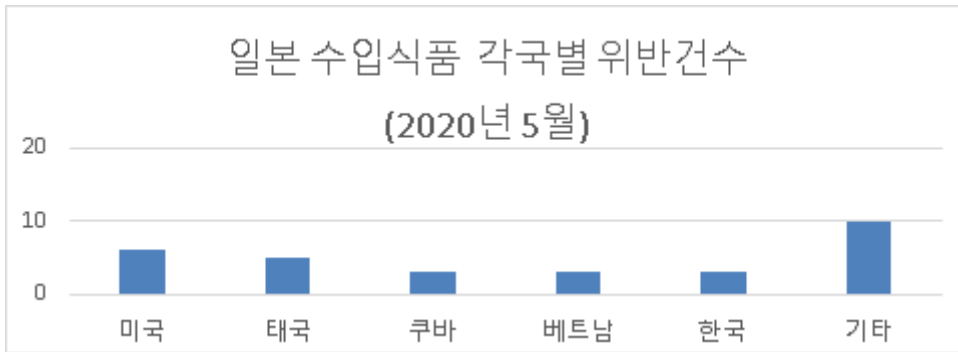
- 한국산의 경우 무말랭이 김치(냉동식품) 및 깻잎김치에서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판명되어 위반되었으며, 스낵과자류에서 삭카린나트륨(기준치 0.10g/kg)이 0.189g/kg 검출되어 위반 사례로 판정됨
- 상기 3건의 위반사례는 모두 일본 사양에 맞추어 관리된 제품이 아닌 국내 유통품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위반으로 보여지고 있음

○ 기타국가

- 태국의 경우 5건의 위반건수 중 쌀에서 부패로 인한 곰팡이 등의 위생위반이 3건 발생하였으며, 냉동 슬라이스 파인애플에서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판명되는 위생위반이 1건 발생함. 열대과실인 듀리언에서 잔

- 류농약인 프로미시미돈이 0.02ppm이 검출되는 위반사례가 발생함
- 그 외 베트남의 경우 고구마 샐러드에서 솔빈산칼슘 첨가물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콩고물에서 대장균군 위생위반이 발생하였음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 국가명 | 위반건수 | 위반점유율 | 잔류농약 | 아플라톡신 | 위생 | 첨가물 | 기타 |
|-------|------|-------|------|-------|------|------|-----|
| 중국 | 8 | 21.1 | 5 | 2 | | | 1 |
| 미국 | 6 | 15.8 | | 5 | 1 | | |
| 태국 | 5 | 13.2 | 1 | | 4 | | |
| 쿠바 | 3 | 7.9 | | | | 3 | |
| 베트남 | 3 | 7.9 | | | 1 | 2 | |
| 한국 | 3 | 7.9 | | | 2 | 1 | |
| 기타 | 10 | 26.3 | | 2 | 4 | 3 | 1 |
| 합 계 | 38 | 100.0 | 6 | 9 | 12 | 9 | 2 |
| 비율(%) | | | 15.8 | 23.7 | 31.6 | 23.7 | 5.3 |